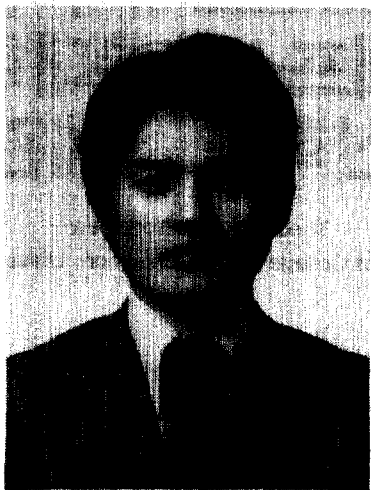


도르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Theology and Worldview
of Dordt College and Potchefstroom University

김성수

1. 서론
2. 대학의 역사 개관
3.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의 세계관적 특성
 - 1) 교육신조의 초안과 발전
 - 2) 고백적 특성 : 왕국관점
 - 3) 학문의 자유
 - 4) 봉사할 수 있는 지식
 - 5) 통합을 위한 노력
 - 6) 봉사와 청지기 의식
4. 대학의 세계관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5. 맺는말



김성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철학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Potchefstroom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고신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신대학 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소장, 기독교교육학회 회장으로, 그리고 지난 1989년부터 금년 1992년까지 미국 Dordt College의 교환교수로 있다.

1. 서론

미국 아이오와(Iowa)주 수 센터(Sioux Center)에 소재하고 있는 돌트대학(Dordt College)은 미국 “중북부 대학 및 학교협의회”(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에 의해 공인된 학교로서, 1988년 U.S. News & World Report 가 미국의 대학들 가운데서 교수, 학생, 및 학문적 탁월성에 있어서 특징이 있고 우수하다고 선정한 15개 대학들 중 하나이다. 또한 템플턴 재단(Templeton Foundation)은 돌트대학에 대하여 “가치교육”(values education)에 중점을 두는 특색있는 대학으로 영예를 주고 인정한 대학이다.

한편, 남아공화국 포체프스트룸(Potchefstroom)에 소재하고 있는 포체프스트룸대학교(공식명칭은 기독교고등교육을 위한 포체프스트룸대학교,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는 1869년 11월 남아공화국 개혁교회(Gereformeerde Kerk)의 신학교로서 개교한 이래 지금은 10,000 여명의 학생과 1000여명의 교수진, 1200여명의 행정직원들로 이루어진 종합대학교로서 역시 특색있는 대학교(Character-Building University)로 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상에 언급한 두 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을 고찰해 봄으로서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가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대학을 이 한국땅에 건설하는 값진 일에 일말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2. 대학의 역사 개관

돌트대학은 기독교교육을 모든 수준에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소원하는 미국의 기독교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돌트대학은 그랜드래피드 미시간에 소재하고 있는 칼빈대학(Calvin

College)과는 달리 기독교개혁파교회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아니다. 그러나 이 대학을 후원하는 집단은 대부분 개혁파교회의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교수진은 모두 개혁파교회의 신학과 신조를 지지하고 고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85% 정도가 개혁파교회의 배경을 갖고 있다. 돌트대학에 관심을 갖고 이 대학을 운영하는 부모들은 모두 개혁파교회의 신자들이며 성경적, 개혁주의적 인생관-세계관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돌트대학은 처음부터 기독교개혁파교회에 속한 신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로 교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35명의 학생과 5명의 교수진을 갖고 “중서부 기독교초급대학”(Midwest Christian Junior College)으로 시작하였다. 그후 1956년에는 돌트대학(Dordt College)으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61년에는 4년제 대학으로 확장하였다. 1963년에는 초급대학반(Junior Class)을 추가하였으며,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여 1965년에는 재학생 500명, 1978년에는 재학생 1300여명으로 성장, 현재는 1500여명의 학생규모를 갖고 있다.

학과의 증설도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여, 1969년에는 경영학과를 증설하였고, 그후 농학, 공학, 사회복지, 전산학등을 추가 신설하여 현재 인문과학(humanities), 자연과학(natural sciences), 사회과학(social sciences)의 3개 학부와 40여개 정도의 전공을 개설하고, 70여명의 교수진용을 갖추고 있다.

남아공화국의 포체프스트룸대학교 역시 돌트대학과 유사한 역사와 신학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아공화국의 개혁파교회 신자들은 1859년 “개혁파교회”(Die Gereformeerde Kerk)를 세운 후 곧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1869년에 버르걸스도르프(Burgersdorp)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신학교를 세웠다. 그후 1904년에 이 신학교를 포체프스트룸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0년후 언약의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사양성기관을 세웠는데, 이 기관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1951년에는 독립적인 대학교로 성

장하게 되었고 자연과학, 예술, 법학, 약학, 경영학 등 많은 학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학생수에 있어서도 1961년 까지만 해도 약 1200명 정도의 학생규모를 가졌으나 1992년 현재는 10,000여명의 학생규모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프레토리아(Pretoria)와 버트바트르란드(Witwaterland), 팔 트라이앵글(Vaal Triangle) 지역 등 급속하게 발전해가고 있는 공업지역을 봉사하기 위해 밴더베일파크(Vanderbylpark)에 제2의 캠퍼스를 두고 있다.

남아공화국에는 현재 약 14개의 전문대학교와 17개정도의 종합대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블룸폰테인(Bloemfontein)에 소재하고 있는 오렌지자유주대학교(the University of the Orange Free State)와 포체프스트룸대학교가 기독교대학교로서의 특색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체프스트룸대학교만이 공적으로 인정된 기독교대학교의 명칭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권은 대학의 설립자들과 이사회, 교직원 등 모든 지도자들이 여러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교만은 세속 어느 대학과는 달라야 하며, 대학의 연구와 교수활동은 물론 대학의 행정 등 모든 교육활동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명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를들면, 학교의 문장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제작한 “금촛대”(The Candelabra, 출 25:31-40)로서 빛과 새생명의 전달자로서의 대학교의 위상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In U Lig”(In Thy Light)라는 표어는 시편 36편 9절의 “주의 광명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는 성경말씀에서 따온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안에서 모든 학문활동을 수행한다는 기독교적 학문창달의 의지를 반영해 보여주고 있다.

블룸폰테인에 있는 오렌지자유주대학교 역시 포체프스트룸대학교와 함께 이와같은 특색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독교대학교로서의 특색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곧 대학의 교직원들이 광의적인 의미에서 서구의 기본적인 기독교전통과 가치를 형식적으로 고수하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그러나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총장을 위시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연구와 교수, 각종 위원회와 연구소활동, 그리고 행정적 및

받침을 통하여 협동적이며 일관성있게 기독교학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이와같은 공식명칭과 특색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남아공화국의 모든 다른 대학들은 소위 “양심조항”(Conscience Clause)의 법적 적용을 받게 되어있다. 양심조항이라는 것은 대학이 개인적인 종교나 신조에 관계없이 학생을 받고 교직원을 임용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이다. 이 양심조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 일체의 국가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10여년 동안 정부와의 오랜 투쟁 끝에 이 양심조항으로부터 면책특권을 갖게 된 유일한 대학교가 되었으며,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정신과 방향을 담은 고유한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곧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교직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을 임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의 기독교적 특색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학생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신조나 종교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적요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포체프스트룸대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학당국은 학생들에게도 대학의 기독교적 특색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며 기대하고 있고, 현재까지 기독교대학의 이러한 특색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룸폰테인에 소재하고 있는 오렌지자유주대학교를 제외하고 남아공화국의 다른 대학들은 소위 세속적인 대학들이다. 물론 이들 세속대학들이 반드시 반기독교적인 대학들인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구문화의 근간을 따라 대학의 본질과 기원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인본주의”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이러한 입장이 대학의 활동기초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학의 모든 활동, 특별히 대학의 학문적 활동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수행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1869년 개교이후 지금까지 기독교종합대학교로서의 특색을 건실히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3.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세계관적 특성

1) 교육신조(Mission Statement)의 초안과 발전

기독교대학이 그 세계관적 특색을 외적으로 표명하고 내적으로 구현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신조이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독특한 과업과 사명을 발전시키고 시행하는 것을 학교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하고 계속적인 연구와 관심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두 대학들에 있어서 교육신조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돌트대학의 경우를 보면, 교수회와 이사회가 1962년에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진술한 최초의 공식적인 신조(institutional statement)를 채택하였다. 그후 1968년에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방향지워진 고등교육”(Scripturally Oriented Higher Education)이라는 공식문서로 확대채택하여 기독교고등교육의 원리와 이의 적용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이것을 기초로하여 이사회, 행정기구, 교수회는 대학의 교육신조(mission statement)를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1976년 가을에는 새로운 목적진술을 초안하였고, 이것을 1977년부터 1979년에 이르기 까지 3개년 동안교수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돌트대학의 교육적 사명”(The Educational Task of Dordt College)이라는 명칭으로 교육신조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그후에도 돌트대학은 소위 “목적연구위원회”(The Purpose Committee)를 구성하여 “돌트대학의 교육적 사명”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동 위원회는 교육신조에 “구조”(Structure)와 “권위”

(Authority)에 관한 장을 새롭게 작성하였고 1988년에 교수회와 이사회가 이 추가조항들을 공식채택하였다.

돌트대학은 이와같은 교육신조의 내용을 대학의 요람(Dordt Catalog)에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교수수첩이나 학생수첩에 반드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교수 및 직원들의 채용시에 후보자들에게 보내어서 대학의 이념적 특색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교수, 행정직원의 계속적인 증가와 시설확장, 그리고 보다 나은 봉사를 위한 제반계획도 모두 대학의 교육신조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실행하고 있다. 최근에 돌트대학의 장기종합발전계획위원회는 “1990년대를 위한 발전계획”(Renewing Our Vision: A Strategic Plan for the 1990's)을 만들었는데 이 발전계획 역시 교육신조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2) 고백적 특성: 왕국관점(Kingdom Perspective)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존재의 기초석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자의 생활에 이종적인 방향을 제공해 준다는 확신이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대한 이해, 해석, 의미, 목적의 열쇠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구주(Savior)이시며, 동시에 창조세계의 주님(Lord)이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생활에 중심이 되신다. 모든 인간, 피조물, 그리고 제도가 생겨나고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은 구조지워지고 창조세계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대학의 이와같은 고백적 특성은 한 마디로 “왕국관점”(하나님 나라 관점)(Kingdom perspective)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돌트대학의 요람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성경과 창조세계는 우리에게 주권자되신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만물이 그 분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 분의 영광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작하고 돌보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기적인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왕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는 자신과 피조세계를 분열과 갈등, 비참과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왜곡된 것을 구속하셨다. 인간 타락의 결과는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로 부터 피조세계를 구속하셨고 만물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구속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르신다.”

3) 학문의 자유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른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관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학문의 자유문제는 고등교육에서 항상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로마 카톨릭 진영 역시 학문의 자유문제가 민감한 관심사가 되었는데, 그것은 성윤리문제에 대한 찰스 쿠렌(Charles Curran) 신부의 가르침이 교회의 가르침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고당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였다. 학문의 자유문제는 북미의 기독교대학협의회(the Christian College Coalition)에서도 항상 논의되는 문제이다. 기독교대학협의회 최근 2년간의 년차대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학문의 자유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분명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문의 자유문제가 특별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학문의 자유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이들 기독교 대학들이 경직된 일치주의와 자유분방한 개인주의의 양 극단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학문의 자유를 영역주권(sphere sovereignty)의 맥락 안에서 보고 있다. 영역주권의 원리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하나님의 주권아래 각각의 고유한 사명(과업)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는 이 여러 사회영역 가운데 한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른바 형식교육(formal education)의 과업을 감당하고 있다. 학교는 그 과업을 어디까지나 다른 사회영역들과의 협동적 관계속에서 감당한다. 그러나 어떤 다른 사회영역도 학교의 고유한 과업의 자유로운 행사를 간섭할 수 없다.

교육적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의 교수는 독특한 권위를 가진다. 참된 학문활동이 있기 위해서는 학문자유를 행사를 육성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본질적이다. 모든 학자들은 자신의 탐구영역에서 탐구, 조사,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선협적인 신념을 보호할 목적으로 진리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학문기관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 학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신조적 맥락(creedal context)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학문활동은 일련의 체계적 신앙의 의해 조건지워지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 신념은 계속적으로 검토되어 변화와 재구성에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절대적 자유(absolute freedom)와 비기능적인 보수주의적 신앙체계(nonfunctional conservatistic faith system)의 양 극단을 피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교수와 학생들은 이들 기독교대학들이 헌신하고 있는바 이미 검증되고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념과 신조, 확신을 도외시하거나 여기에 대해 무책임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신을 양육해서는 안된다. 이와같

은 제 원리들에 대해서 확고한 학적 정당성이 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학문자유행의 행사가 아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와같은 관점은 이들 두 대학들이 학문의 자유를 일차적으로 학문적(academic)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religious issue)로 올바르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문의 자유란 학문적 추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학문의 자유를 올바르게 보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이 획득되고 거짓된 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4) 봉사할 수 있는 지식 (serviceable insight)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교육철학에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세계의 중심(the center of creation)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독교신자학자들의 학문공동체로서 이들 두 대학은 창조세계를 통합된 총체(integrated totality)로서 보며, 이 통합적 총체속에서 각 부분이 일관되고 의미있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모든 학문활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가시는가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소원으로 동기화된다.

따라서,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교육적 과업과 사명은 참된 기독교적 봉사(genuine Christian service)를 할 수 있는 지식(insight)을 획득하고 전수하는 것이다. “봉사할 수 있는 지식”(serviceable insight)이라는 표어는 이론과 실재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들 두 대학의 교육목적의 한 마디로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비시켜 이들이 하나님의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이다. 이러

한 기독교적 통찰은 이론적(theoretical)인 동시에 실제적(practical)이다. 이러한 통찰은 하나님의 창조질서(God's created order)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양하기 위해 사랑의 순종과 봉사의 정신으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돌트대학의 요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의 왕국에 봉사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탐구, 조사하고 이해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교육기관은 창조질서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전수하는 활동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는 세속화의 세대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돌트대학은 참된 기독교적 지식, 즉 성경의 자유케 하는 빛의 조명하에서 창조세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술공예와 세속적 문화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리하게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돌트대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잡한 세계속에서 그들의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찰력(지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기독교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구조와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와는 다른 차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과업을 사랑의 순종과 봉사가운데서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과 왕국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기독교대학의 사명과 과업에 헌신되어 있는 자격있는 교수진을 선별채용한다. 교수진은 효과적인 교사여야 하며, 자기 전공영역에 유능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전문적 영역에 있어서 계속적인 발전의지와 “봉사할 수 있는 지식”의 총체적 발전에 공헌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와 행정당국은 교수들의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격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두 대학들은 소위 직업준비과정(Vocational Course)과 인문교양과정(Liberal Arts Course)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구분은 직업적 과제 (Occupational Tasks)와 문화적 활동(Cultural Activities)간의 잘못된 구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in all areas of life)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따라서 전공영역의 개설은 필요, 요구되는 지식수준, 경제적, 지역적 필요, 기타 실제적인 고려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진다.

5) 통합을 위한 노력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이들 대학들이 그들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각기 분리된 전문영역들로 파편화되는 현상을 막아볼려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이다.

(1) 첫째는 교수진과 학생들이 경주하고 있는 이른바 기독교적인 신앙(Christian faith)과 학문(learning)을 전체 교육과정을 망라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계속적이며 의도적인 노력이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라는 학문공동체는 소위 “중립적”인 사실(neutral facts)에 기독교적인 가치(Christian Values)를 단순히 추가하는 일에 만족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복미는 물론 우리 한국에도 소위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대학과 학문 단체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대학과 단체들은 거의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 또는 “성경과 과학의 통합”에 대한 헌신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 사용되는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같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소위 중립적인 과학적 사실(neutral scientific facts)에다가 성경적인 진리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접근방법으로서는 참되게 성경적인 학문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대학들은 과학적 사실에 성경적인 진리를 단순히 추가한다던가 성경과 과학을 “조화”(harmonizing)시키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기 보다는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학문을 보는 과학자”(the scientist viewing science through the spectacles of Scripture),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the scientist engaging in scientific activity from a biblical perspective)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더 좋아한다. 돌트대학의 “1990년대를 위한 발전계획”(Renewing Our Vision: A Strategic Plan for the 1990's)에는 이러한 노력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서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돌트대학이 추구하는 교육의 첫번째 독특한 특성은 전체 교육과정을 망라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을 발전시키고 드러내고자 하는 교수진과 학생들의 의도적인 노력이다. 교수진들은 자신들의 탐구영역에서 “내적인 개혁”(inner reformation)활동에 종사하도록 격려되고 기대되어진다. 돌트대학의 학문공동체구성원들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사실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추가하는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적 관점이 자신들의 탐구영역의 구조와 조직에 조명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다 깊이 탐구하며, “사실들”을 바라보는 맥락(context)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깊은 탐구를 한다. 성경적-개혁주의적 세계관이 돌트대학의 교육과정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창조, 타락, 구속의 삼중교리는 신학, 경영학, 물리교육, 또는 공학 등 모든 학문영역에 있어서 개혁주의적인 기독교적 접근에 본질적인 것이다.”

이상의 인용내용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내적인 개혁”이라는 단어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의 다양한 국면들이 존재하게 하셨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distortion)과 기형(deformation)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학문의 내적, 구조적 개혁을 추구하고, 나아가 창조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기독교적 학문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소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인 과학자가 자신의 학문활동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 과업은 계속적인 과업이다. 우리의 학문활동은 계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의 개혁적인 빛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돌트대학교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기독교적인 관점(Christian Perspective)에서 다양한 탐구영역의 구조와 조직을 조명하는 방법을 탐구하는데 지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 두번째는 교육과정내의 통일성(unity)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다. 돌트대학교 포체프스트룸대학교에서의 교육은 고립되고 상호연관성이 없는 지식조각의 축적과 전달이 아니라, 인지적 틀(intellectual framework)의 발전을 지향하는데, 이 속에서 각 학문영역의 의미있는 상호연관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영역은 본질상 상호연관성이 없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다. 학문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학문의 전문화와 분화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통일의 원리와 의미를 채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학문사회는 스노우(C. P. Snow)가 “두개의 문화”(Two Cultures)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등 서로 다른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답을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직시하면서 기독교대학은 교육과정의 분화작업과 더불어 통일성을 추구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중핵교과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소명이 무엇이던지 간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본질과 요구에 대한 통찰을 발전시켜 나간다. 교양교육과정(general education) 역시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과업에 본질적인 지식, 즉 기본적인 수량적, 분석적, 언어적, 신체적 기술들을 발전시켜 준다.

(3) 세번째는 학문(learning)을 삶(life)과 통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다. 교육은 단순히 사실과 추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보다 훨씬 더 광범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모든 교과과정과 프로그램들은 기독교적 봉사(Christian Service)라는 초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예컨대, 평화, 공의, 청지기직, 협동의식 등등의 문제는 어떤 특정 과목이나 프로그램 만의 초점이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발전에 필요한 헌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들 동인들 가운데 그 어느것도 효과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그리고 캠퍼스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동료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요약컨대,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교육은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기독교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 신앙이 모든 교육과정에 스며드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색이야말로 대학의 모든 다양한 활동을 통일지우는 원리이며 실재를 지도해가는 지도지침이다.

6) 봉사와 청지기 의식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이들 대학들이 강조하고 있는 봉사(service)와 청지기 의식(stewardship)을 통해서이다. 이들 대학들은 한결같이 지역사회와 신앙공동체에 대한 대학의 봉사기능을 강조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구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가꾸고 다스려야 한다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져가고 있

다. 지구의 온실화, 산성비, 대양의 쓰레기 오염, 기름유출, 산림의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특별히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예컨대, 1989년 5월에 노르웨이의 수상 브룬트란드(Gro Harlem Brundtland)는 워싱턴(Washington, D.C.)에서 행한 제6차 벤자민 프랭클린 강의(the sixth annual Benjamin Franklin lecture)에서 “지구의 변화와 우리의 공동미래”(Global Change and Our Common Future)에 관해 연설하면서 미래를 형성함에 있어서 과학자들의 역할이 오늘날에 와서는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는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 역시 이와같은 도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들은 시간과 재능, 재물을 단순히 사용한다던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등 청지기직에 대한 협의적인 관심에서가 아니라 청지기직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의 성경적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집의 관리인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창조세계에 임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를 회복하시고 이제 구속받은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도록 요청하신다. 그래서 스쿠로텐부어(Paul Schrotenboer)가 “나의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For My Neighbor's Goo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청지기직은 이제 “삶 그 자체”와 같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나라의 삶을 준비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고등교육기관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것은 비단 전문적인 환경과학의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대학의 모든 교육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창조의 측면을 돌보는 청지기직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이와같은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 대학의 세계관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신학적, 세계관적 특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지, 발전시키며 보급해가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두 대학들은 대학의 독특한 신학과 세계관을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수임용과 평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필자가 포체프스트룸대학교와 돌트대학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연구하는 기간동안 대학의 이사들을 많이 만나 질문해 본 것은 이사들이 교수채용시에 어떠한 점에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는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란것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교수의 전공영역에 대한 수월성과 자기 영역에서 교수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냐 하는 능력과 의지를 먼저 본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 역시 교수개발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특강기회를 마련하고 교수심포지움과 포럼등을 통하여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활동을 부단히 진작시켜가고 있다.

또한, 기독교학문연구소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통하여 출판활동 및 여러 프로젝트의 입안과 개발을 도와주고 있는데, 돌트대학의 경우는 학문연구소(Studies Institute)가 대학의 기독교적 특성유지에 중추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있고,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경우에는 개혁주의 학문연구소(Institute For Reformational Studies)와 학문연구부(Wetenskapsleer Department)가 주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중핵교육과정등을 통하여 이념을 확산해 가고 있는데 돌트대학의 경우에는 철학과목(Perspective in Philosophy)을 3학점 단위로 1학년 전체학생들에게 공통필수 과목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소명, 과제, 그리고 문화”(Calling, Task and Culture)라는 특색있는 과목을 역시 공통필수과목으로 이수케 하여 학생들이 졸업후 나아가 살아가야 할 사회가 어떠한 사회이며, 어떠한 문화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논의하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독

특한 소명과 과업을 일깨워 준다.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1학년 전체학생들에게 “학문의 이론 A”(Wetenskapsleer A) 과목을 역시 공통필수와 과목으로 이수케 하여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학문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2학년에서는 “학문의 이론 B”(Wetens-kapsleer B)과목을 이수케 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전공영역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판, 적용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대학당국은 또한 기독교적 학문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학생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아울러 중요한 학교정책을 입안하는 직책에는 반드시 기독교세계관에 투철한 요원들을 임용하여 특색있는 개혁주의적 기독교대학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5. 맺는말

지금까지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이 투영되는 제반 교육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두 대학들의 신학과 세계관적 특색을 고찰해 보았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모두 단순한 지역 사회의 대학이 아니라 “특색있는 대학”(character university)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두 대학들은 모두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학문활동을 추구하기를 소원하는 학생들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특별히 교수진의 임용에 있어서 엄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적 신조와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을 자신의 연구와 교수활동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수진 확보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대학당국은 교수진의 임용후에도 기독교학문에 대한 여러 강좌를 마련하여 교수들의 자질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는 대학의 모든 활동, 특별히 연구와 교수활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수행하는 일을 가장 중차대한 사명과 과

제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진들은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며, 성경이 제공하는 관점과 학문적 활동을 참되게 통합해 갈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제반 이론과 모델의 철학적 기초를 확인하고, 학문활동에서 세계관의 역할을 인식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작용적 철학으로 체계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지식을 자신들의 이론구성과정에 적용해 가도록 학문공동체 전체가 기대하고 있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이와같은 관심은 바로 이들 두 대학들의 신학과 세계관적 특성이 어떠한가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두 대학은 모두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인 성경적 신학과 세계관을 철두철미 고수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의 기초로 삼고 있다. 돌트대학과 포체프스트룸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문과 신앙의 통합, 왕국관점, 개혁주의, 창조-타락-구속, 이원론 배경, 영역주권, 하나님의 주권, 청지기직, 소명, 봉사할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나라 등등과 같은 용어들이야 말로 이들 두 대학들의 신학과 세계관적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잘 표현해 주는 말들이라고 생각된다.